

주심의 야릇한 카드 번복

# 연변팀, 기대했던 홈장 승리는 없었다

— 페널티킥 얻어내며 앞서다가 동점골 허락하며 중경팀과 1대1 무승부



페널티킥을 성사시키고 있는 로난

연변룡정팀 홈장에서 주인공은 주심이였다. 연극과도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연변룡정팀은 한풀 앞선 상황에서 승리를 굳히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락하며 홈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연변룡정팀 (이하 '연변팀')은 4월 5일 오후 3시, 2만명 홈장 축구팬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현장에서 중경동량팀과 올 시즌 홈장 첫 경기를 펼쳤다. 홈장의 천시지리인화에 힘입은 첫 승을 모두들 예타게 기대했으나 결국은 중경동량팀과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연변팀은 이날 4-1-4-1 전형으로 시작했다. 최전방에 로난을 선두로 왕봉, 한광휘, 이보, 서계조, 왕성패, 리호걸, 허문광, 왕박호, 천장걸을 내세워 선발을 꾸리고 키퍼 장갑은 동가레이 착용했다.

이날 역시 장해현 (23번 문지기), 왕사홍 (17번), 류명사 (24번), 리진전 (8번 키퍼), 송반 (21번) 등 5명의 U21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운 중경팀은 4-4-2 전형으로 맞섰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했다. 연변팀은 양쪽 측면을 통해 전진 공격을 노렸고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된 중경팀도 시작부터 물러섬이 없이 맞붙었다.

전반 10분내에 이미 연변팀은 중경팀 수비 공간을 휘저으며 여러차례 슈팅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더불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수차례 연출되는가 싶었지만 끝방을 흔드는 결정적인 한방은 나오지 않았고 중경팀은 연습의 기회를 엿봤다.

팽팽히 당겨졌던 경기의 균형이 깨진 건 34분경이었다. 로난이 한광휘의 패스를 받아 중경팀 금지구역으로



2만명의 팬들이 홈장 첫 경기에 모여 열띤 응원을 펼쳤다.

돌파하며 키퍼와 1대1 대치 상황에서 중경팀 키퍼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주심은 단호하게 휘슬을 불었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다들 첫 골을 예상하며 들떠있던 와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스운 상황이 시작되었다.

중경팀의 키퍼가 강하게 항의를 했고 주심은 또 한번 단호함을 발휘하니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중경팀의 코치진이 선수들을 불러들이며 경기를 기권할 기세로 거세게 들고 일어났고 문기적 문기적 카드를 만지작대던 주심은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럽기적인 행동을 벌였다. 키퍼에게 주었던 레드카드를 거둬들이고 옐로카드로 바꿔주며 경기를 진행시켰다. 란장판이었던 장면이 커커로 나선 로난이 끝방을 가르며 찾아드는가 싶었다.

그런데 추가시간 9분이 주어졌고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주심의 하극상이 갖 사그라들었던 혼란의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빨 경합 상황도 아니었고 이보와 별다른 큰 신체 접촉도

없이 상대방 14번 선수 황희양이 넘어졌는데 주심은 맥락없이 또 한번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었다. 이보와 선수들이 격노했고 연변팀 코치진이 거세게 항의했다. 장면이 통제불능할 정도로 불꽃이 튀었다. 그러자 주심은 재차 레드카드를 거둬들이는 기행을 자행하더니 옐로카드로 번복하며 다시 한번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이쯤 되니 혹시 주심이 옐로카드로 레드카드를 구분하지 못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로난과 혼란의 연속이었던 전반전 경기는 연변팀의 1대0으로 마무리되었다.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한 연변팀, 전반전의 혼란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중경팀의 기세가 사나웠다. 57분경에 중경팀의 송반이 주심의 휘슬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주심은 옐로카드로 기선제압에 들어갔다. 한풀 뒤진 중경팀은 매섭게 라인을 울

려 전진 공격을 시도하며 연변팀의 골문을 위협했다.

이후 두 팀은 치열한 힘 겨루기에 나섰다. 중원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서로의 빈틈을 찾았다.

73분경, 이번에 경기의 균형을 깨진 중경팀이었다. 연변팀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든 중경팀은 이내 연변팀 문전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아슬아슬하게 문전을 위협했고 단 한번의 수비 미스를 잡아 중경팀의 송반이 슈팅을 때렸다. 중경팀의 주격골이었다.

1대1 동점으로 돌아온 연변팀은 부상으로 결장했던 아블레다를 출전시키고 왕성패를 뺐다. 리담이 왕박호를 교체해 출전했다. 연변팀은 동시에 교체 카드 2장을 썼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연변팀은 79분경에 재차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리강이 천장걸을, 현지건이 한광휘를 교체하며 추가골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그렇다 할 위협적인 슈팅면이 나오지 못했고 연변팀은 87분경에 리세빈을 투입하며 리호걸을 교체했다.

후반전에도 추가시간이 꽤 긴 6분이 주어졌다. 무승부에 만족하는 듯한 중경팀이 시간 끌기 조짐을 보였다. 반면 승리에 대한 의욕이 충만했지만 연변팀은 더 이상 추가골을 만들지 못했다.

홈 승전고를 울리지 못한 연변팀은 승점 1점을 나눠가지며 4월 13일 오후 3시에 석가장공부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연속 홈경기를 펼친다.

한편 이날 1만 9,450명 팬들이 연변팀의 올 시즌 첫 홈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다.

/글 김가혜기자 /사진 김파기자

[특독 관전평]

심판 판정 '촌극'에 얼룩진 첫 홈장전... 다음 경기 역시 홈, 기대감은 살아있다



첫 홈장전에 선발로 출전한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홈장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 수치가 증명한다. 올 시즌 첫 홈장에 1만 9,450명이 몰렸다. 갑갑리그 제5라운드 입장 관객수 통계에서 연변팀 홈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할 만큼.

김봉길 감독 역시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중경팀은 만만치 않은 상대인 만큼 준비를 더욱 잘해서 우리를 기다린 팬들에게 좋은 경기, 나아가 꼭 승리하는 홈장 개막전을 선물하겠다."고 표하면서 홈경기에 대한 중시를 드러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연변룡정팀 (이하 '연변팀')은 4월 5일 오후 3시에 펼쳐진 제5라운드 중경동량팀과의 올 시즌 첫 홈장전에서 많은 이들이 예타게 기대했던 첫 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1대1 무승부에 그쳤다.

기술통계표를 보면 연변팀은 슈팅 5회에 유효 슈팅 2회를 기록했다. 중경동량팀이 슈팅을 12회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1회에 그쳤다. 그 말인즉 연변팀은 중경팀의 유효 슈팅 단 한번을 막아내지 못하고 실점을 허락했던 셈. 중경동량팀이 연변팀의 2배를 웃도는 슈팅을 퍼붓고도 유효 슈팅이 한차례에 그칠 정도로 결정력이 빈약했다. 대신 결정력만 부족했을 뿐 중경팀은 연변팀 문전을 수도 없이 위협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2021년 12월 23일에 등록, 설립되어 2022 시즌에 을금리그에 진출하고 2023 시즌에 을금리그 1위로 갑금리그에 진출한 중경동량팀은 젊은 기운이 넘치는 팀이다. 이날도 5명의 U21 선수들을 선발

로 내세우며 무섭게 몰아붙였다. 연변팀 역시 중원에서 이보가 주축이 되어 중앙과 양측면으로 공을 돌리며 중경팀 수비를 흔들려고 노력했다.

두 팀이 팽팽히 맞서며 전반전은 그야말로 불꽃이 튀었다. 더우기 연변팀은 전반전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며 앞서갔다. 후반전에 진입해 다들 추가골을 기다리며 승리를 굳히려는 기대를 지고 기 하고 있던 때 연변팀은 다소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는가 싶더니 되려 동점골을 향한 상대팀의 파상공세에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순에 맘을 쥐게 한 경기는 73분경 연변팀 문전 앞에서 만들어진 혼란 상황으로 종결됐다. 중경팀의 공격수 송반이 연변팀 수비가 흔들린 틈을 타 동점골을 터뜨렸던 것. 이후 홈장승을 향한 연변팀의 선수 교체와 노력이 이어졌지만 중경동량팀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첫 홈장승은 없었고 이날 인상을 깊이 남긴 건 주심의 어이없는 촌극이 아닐까 싶다. 각 팀에 각각 레드카드를 선언했다는 두번다 거둬들이고 다시 옐로카드로 번복한, 그야말로 웃을 수도 없고 웃기지도 않는 주심의 '촌극'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우스운 상황에서 너무나 이따가 되는 점을 짚자면 이보에게 주었던 레드카드가 거둬들여졌다는 점?

아무튼 다음 경기 (4월 13일)도 홈이다. 홈장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 김가혜기자

역전골 허용한 장춘아태, 상해신화에 1대2 패배

마지막에 웃은 자는 오히려 원정 경기를 치른 상해신화팀이었다. 4월 5일, 2024 시즌 중국 슈퍼리그 제4라운드 경기에서 장춘아태팀 (이하 '장춘팀')은 홈장에서 1대2로 '선두주자'인 상해신화팀 (이하 '상해팀')에 역전골을 내주며 패했다. 현재 1승 3패 승점 3점으로 잠시 슈퍼리그 순위 13위에 머물러 있다. 이날 승리로 상해팀은 4연승을 기록하며 무서운 상승세로 슈퍼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선수 부상과 출전 정지의 영향으로 장춘팀은 이번 경기에서 최강 전형을 내세울 수 없었다. 원정 경기를 치른 상해팀이 결국 마지막에 웃은 셈이다. 장춘아태팀은 4월 10일 19시 35분에 2024 시즌 중국 슈퍼리그 제5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장주수사자팀과 맞붙는다. / 오건기자

## 장기고수들 불꽃 튀기는 '진검승부'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장기협회 가 주최한 제122회 주조선족장기 '고수전'이 4월 5일 오전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활동실에서 펼쳐졌다.

조선족 장기에호가들 사이의 우의를 진일보 증진시키고 회원들의 민속장기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데 취지를 둔 이번 '고수전'에는 연변

여러 지역 조선족장기협회에서 온 40명에 달하는 장기고수들이 참가해 불꽃 튀기는 '진검승부'를 펼쳤다.

이번 장기시합은 7게임의 순환경기를 치르고 부적 총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연길시조선족장기협회 철남분회의 마홍길과 조귀철이 각각 우

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3등부터 8등까지는 리주석 (연길시 북대분회), 김호철 (연길시 하남분회), 리근 (연길시 신흥분회), 유광진 (연길시 공원분회), 리동철 (연길시 철남분회), 조정룡 (연길시 철남분회)이 차지하였다.

연변조선족장기협회 회장 김호철은 주조선족장기 '고수전'은 연변지

역 장기고수들이 참가해 펼치는 경기로서 이미 10여년째 이어져오고 있다고 소개, 시험에 참가하는 연변 지역 장기고수들이 대화를 통해 우의를 나누고 장기수준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높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근기자



김봉길 감독

“선수들 잘했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

4월 5일 오후 3시, 홈장에서 치른 중경동량팀과의 제5라운드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연변룡정팀.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김봉길 감독은 “홈 개막전을 이기고 싶었다.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후반전에 속도가 빠른 선수들을 교체 출

전시키면서 득점을 노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풀을 허락했다. 다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표했다.

한편 중경동량팀 감독은 “우리가 요구하던 점수를 벌었다.”며 무승부에 만족하는 듯했다. / 김파기자

